

안전 의식이란 ?



민철기

산업사회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목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그리 용이하지가 않은 것 같다.

인간은 의식주가 넉넉하면 다음으로 바라는 것이 이를 계속해서 보지(保持)하려는 욕구의 충족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안전 보장을 바란다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라는 것도 모두 안전을 유지하려는 뜻과 똑같은 맥락에서 지켜볼 수가 있다.

옛날에 산업사회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서 일꾼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이를 모두 일꾼들의 잘못으로 돌렸던 때가 있었다. (20세기 초엽)

이것이 점점 인지가 발달하니까 이제는 각종의 안전장치가 발달하고 개발되어서 작업자가 실수로 기계나 장비를 잘못 조작 하더라도 미리 막아서 작업자에게 해가 오지 않도록하는 경지에까지 왔다. 이를 전문용어로 FAIL SAFE라고 해서 일단 작업자가 실수를 저질러도 안전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기계문명이나 전자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우리를 사고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각종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실로 난감하다.

FAIL SAFE라고 하는 기기(利器)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킨다. 따라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기업주나 자본가는 이 최신 장비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안전도 보장 받을 수 있고 사고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작업자가 안전의식을 갖도록 일깨우고 고취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일이다.

안전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작업에 임하는 태도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어려서 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위험에 대비해서 나를

보호하고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이야말로, 현재 산업안전면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해있는 우리의 실정을 돌아볼 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

위험을 피할 줄 알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안전 의식을 가지고 그 환경에 맞는 사고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면 사고는 우리를 멀리 할 것이다.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그렇다.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사고의 거의 모두가 과속에 기인하고 있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려진 일이다. 이때 충분히 감속할 수 있는 아량이나 현명한 판단을 가진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와의 차가 한편에서는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참사로까지 번지게 하는 것이다.

안전의식은 하루 아침에 심어줄 수가 없다. 꾸준하고 긴, 긴 세월을 두고 교육 및 실습을 거쳐서 몸에 익히도록 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운동선수가 피나는 훈련을 거쳐서 팬들의 환호에 응답하려면 앞서 이론만 가지고는 안된다. 수영선수가 물속에 뛰어들지 않고 어떻게 이론으로만 헤엄칠 수 있겠는가?

좋은 안전습관도 이와 같아서 몸에 베일 때까지 많은 시련을 겪고 내것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손쉬운 안전수칙이라도 잘 지킬때 그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사고는 남의 일,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하는 아전인수격의 안일한 사고방식이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재난을 불러온 것을 필자는 여러차례 목격을 하고, 사고분석을 위해 연구도 하곤 했다.

끝으로 안전의식이 철저했던 어느 부인의 체험담을 소개한다.

그 부인은 제조회사에서 10여년동안 안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아 왔었기에 이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았다. 친구의 아기똥 잔치에 갔다가 이끌거리는 난로에 죽 둘러앉아서 귀여운 아기를 이리 저리 돌려가며 받고 주고 하는 여러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셰이프티(Safety)”하고 외쳤다.

이것은 그녀에게 지극히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다급한 부르짖음이었지만, 주위의 친구들은 “어머 셰이프티가 뭐니?”하며 의아해 하더라. 이끌거리는 난로 위에서 아기를 주고 받다가 만에 하나라도 실수로 떨어뜨리는 날이면…. 그 뒤는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녀가 순간적으로 외치고 울부짖었던 그 의식은 하루 이틀에 쌓여진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약 10분간의 안전교육이 무려 520회를 거치는 동안, 십년이 걸려 이루어졌던 귀중한 자산이었던 것이다. 74

<필자=안전 전문가>